

2014 조선 4대 명필

제2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 수상작품집 |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2014 조선 4대 명필

제2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 수상작품집 |



조선 4대 명필
제2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회 수상작품집

※ 본 책자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발행처_예산문화원 / 자암기념사업회 ■ 발행인_김시운 · 김충희 ■ 기획_박세진 ■ 행정지원_김상희 · 박지혜
■ 인쇄_2015년 3월 28일 ■ 발행일_2015년 3월 28일 ■ 주소_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예산문화원)
■ 전화_041)335-2441, 333-2441 ■ 팩스_041)334-4330 ■ 디자인/인쇄_디자인톤_010-8524-0514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발·간·사



조선 4대 명필 중 한 분이시자 기묘명현으로 충·효·예 모두를 실천하신 예산출신 자암 김구 선생님의 함자를 아로 새기어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실시하였던 2013년 제1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을 시작으로 2014년 제2회 대회를 마무리하고 수상자 전시회와 도록으로 서예의 본향이라 자부하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에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은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 라는 함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격을 공식화하여 예산군수상과 예산군의회 의장상을 신설하여 자암 서예대전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인수체라는 필법을 창안하시어 조선중기 이후 화려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초석을 놓으신 자암 김구 선생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서예를 통한 예술혼을 계승하기 위한 이 자리가 자암 김구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발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배양된 충·효·예 삼합의 정신이 대한민국 정신 문화의 기반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모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비록 2년차 서예대전 이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거듭 나질 수 있도록 전국의 서예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과 항상 가까이 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5년 3월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축·간·사



오늘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고장 예산출신으로 조선 4대 명필로 대변되는 자암 김구 선생의 얼을 되새기고, 우리나라 본연의 독립서체인 인수체를 창안하신 자암 선생의 업적을 발굴하고, 서체를 연구하여 더욱 승화 시키는 계기가 되는 자암 김구 전국 서예대전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2회 대회를 성대히 마치고, 그 주옥같은 수상작품을 전시하고, 수상자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자암 기념 사업회를 맡고 있는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서예대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격려 해주신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특히 우리고장 예산이 묵향의 본향으로 우리나라 서예의 중심이 되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선봉 예산군수님, 김영호 예산군의회의장님, 김용필 충남도의원님, 그리고 본 대회를 예산문화원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주신 김시운 예산문화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군청 문화체육과 이창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입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제1회 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작품을 출품해주신 전국의 서예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출품작 심사에서 옥중에 옥을 가리시느라 수고하신 손환일 심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더욱 노력하여 우리고장 예산과 자암 김구가 우리나라 서예 예술의 본향으로서, 묵향의 중심으로 정립되는 서예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에도 전국의 서예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수한 작품을 많이 출품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5년 3월

자암기념사업회 회장 김 충 희

심·사·평 ■■■



제2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은 공모전이였다. 작품을 제작하여 공모하는 것으로 입상자에 한하여 현장휘호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공모전이다. 90년대 이후로 전국 규모의 공모전이나 휘호대회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와 종류가 다양해 졌다. 그렇다고 서예인구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현 사회의 시점에서 조선 초기사대 명필로 인수체라는 명칭으로 회자되었던 자암 김구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회상하는 일환으로 공모전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충남도청과 예산문화원, 광산김씨종중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지방문화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예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아주 보람있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공모전에서는 작품의 우수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두인을 사용하지 말 것, 색지를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작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선택될 수 없다. 불법이요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모전은 일반 개인전과 같은 작품의 발표회장이 아니라 작품을 검증받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자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객관성이 결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에는 조선 초기 자암 김구와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가 대표적인 명필이다. 그런데 이들 명필들의 공통점이 있다. 즉 자암의 왕희지 난정서의 임서를 보면 그 자형이 난정서와는 전혀 다른 필법을 구사하고 있고, 추사 김정희 역시 한 대의 석비 임서는 한 대 석비의 자형과는 매우 다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현세의 후학들이 배워야 할 점이다. 추사도 추사집에서 “안진경이 왕희지를 배웠지만 왕희지를 발견할 수 없고, 황산곡 역시 왕희지를 배웠지만 왕희지 필법을 볼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는 자형의 모양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의취를 배웠기 때문이다. 글자의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필의를 배워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으로 표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번 공모전 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학서 형태는 법첩을 보고 선생이 써주는 체본에 따라 자형만 그대로 본받는 것이 요즘의 글씨 배우는 방법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자암이나 추사처럼 필법을 배워 새로운 개념으로 디자인된 새로운 서체를 생성하여 작품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다. 자암은 이미 500년 전에 이 점을 파악한 선각자이다. 바로 이 점이 아쉬운 점이다. 미래의 서예는 서체 디자인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서예는 그림과 다르다. 서예는 반듯이 자학, 문장, 필법 등 해당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서예는 어느 시대나 지식층에서 즐기던 고급문화이다. 즉 한시 한수를 멋있게 적어 놓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아무리 글씨가 좋아도 비웃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림과 다른 점이고 서예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글자의 모양만 꾸미는 글씨는 의미가 없다. 글씨는 서투르지만 직접 지은 시 한수를 적은 농부의 투박한 글씨가 의미가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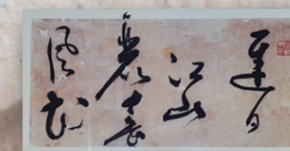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서예인들께 바라 건데 글자의 모양만을 꾸미기 보다는 자기가 적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피고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도 확인하며 수양하듯 공부한다면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대 서예의 주요 목표는 옛것을 흉내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서체디자인이 필요한 시대이다. 즉 자암이나 추사와 같은 나만의 독창적인 서체를 구사하는 점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좀 더 장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한글, 한문, 문인화 뿐 아니라 목각, 석각 등도 요즘 유행하는 서예개념의 분야이다. 물론 목각은 판각을, 석각에는 인장(전각)을 포함한다. 이렇게 서예관련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현재 서예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이다. 서예는 문자의 기록문화이다. 문자의 기록문화는 모두 서예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하나를 더 들자면 1000년 전의 금석문복원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즉 풍우에 일그러진 금석문들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은 앞으로 서예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이다. 금석문복원 작업은 서체를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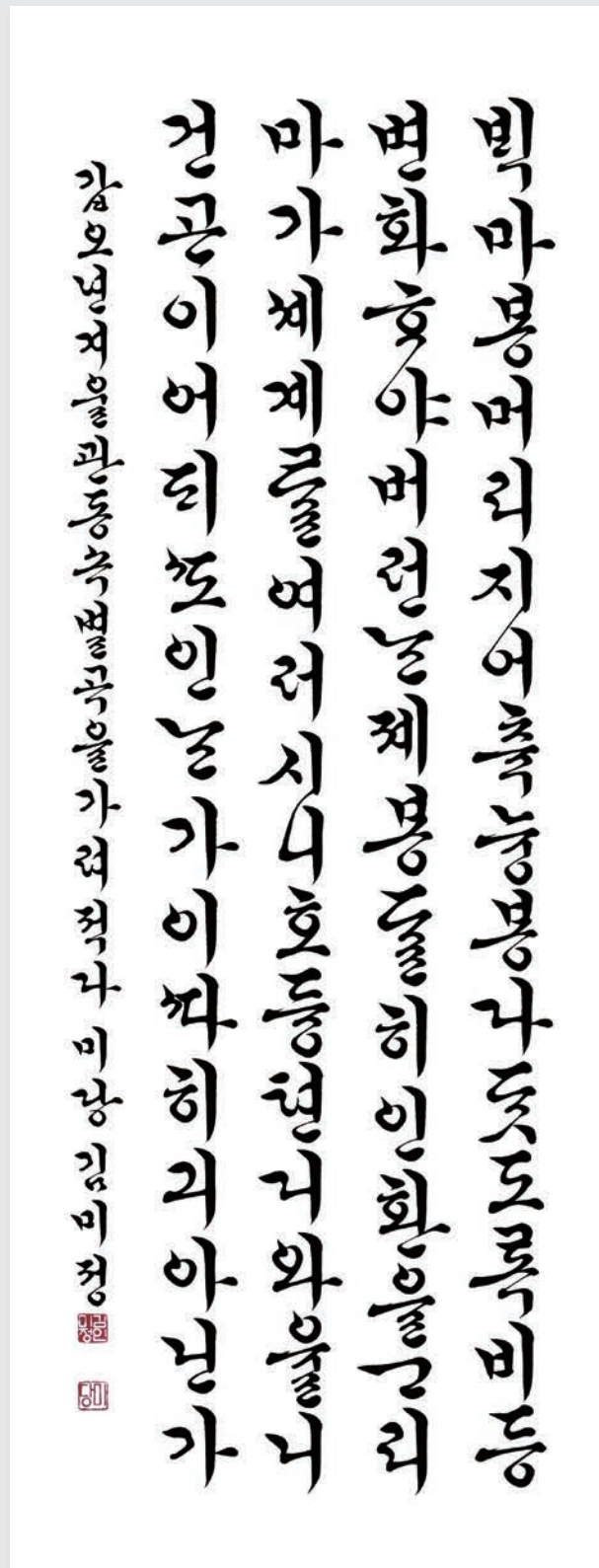
심사위원장 손 환 일

이름	직업	경력사항	연락처	추천처
한글				
김주익	전업작가	추사회호대회 초대작가 회장 국전 심사위원 역임	010-3369-4404	문화원
유옥자	경기대학교 교수	국전 심사위원 역임	010-5360-9710	자암사업회
한문				
윤석명	(사)추사체 연구회 부회장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010-7727-2165	문화원
손환일	서예연구소장	국전 심사위원 역임	010-5477-9009	자암사업회
문인화				
신은숙	전업작가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010-3624-5063	문화원
박석신	목원대학교 전임강사	추사회호대회 심사위원 SBS 화첩기행 진행	010-5421-5954	자암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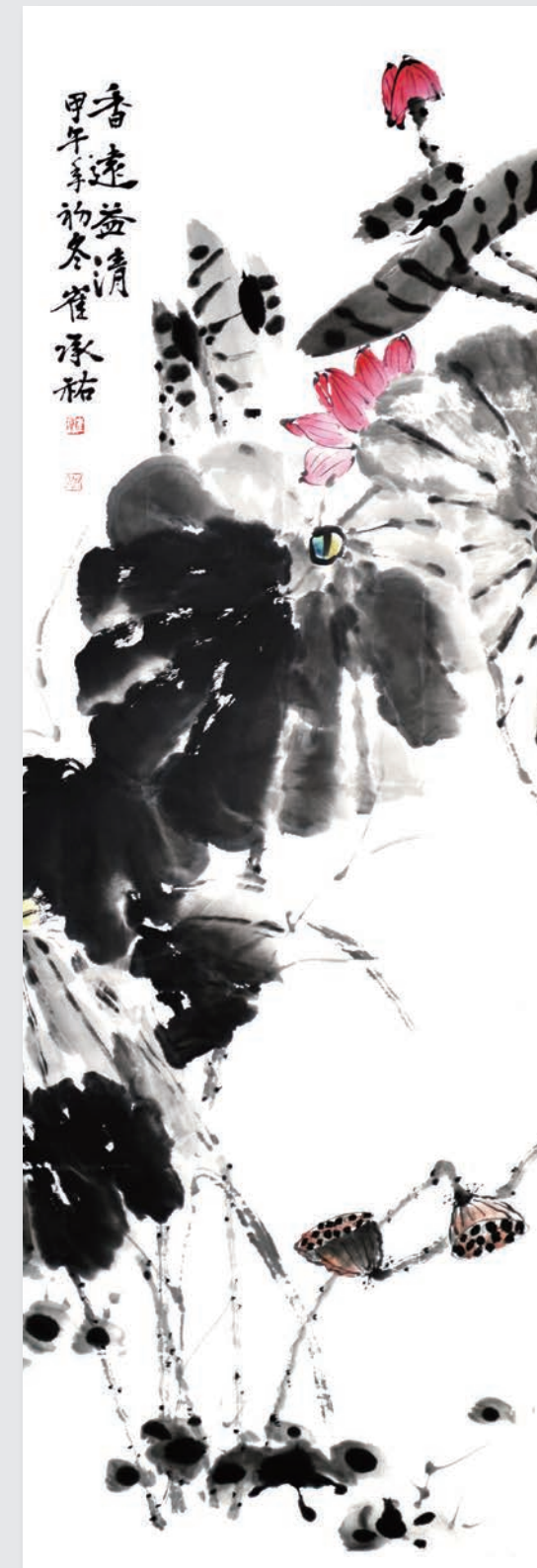
조선 4대 명필
제2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수상작

장원 · 차상 · 차하

장	원	김	미	정	한	글
차	상	최	승	우	문	인
		이	종	희	한	글
		류	종	열	한	문
차	하	박	정	범	문	인
		유	순	식	문	인
		정	영	길	문	인
		김	해	정	한	글
		이	연	주	한	글
		조	희	원	한	글
		박	정	희	한	문
		송	명	자	한	문
		조	정	호	한	문



김 미 정



최 승 우

秋風染萬峯將瀑洗
俗塵絕景而閑裕何
能別有仙

自作詩剛泉山行甲午孟冬
文山柳種烈

류종열

북은동하서맛과기강의종지영우인수영아문
음축이오며예능을양친구체철양강우물시용노절어
후읍신호가지물시용노양체능우물양이거지거노
지체물양히지어우물시용다의철절어우물시용한이
동량우물절시용정우물시용노음신양체노이철다
거칠절어우물시용다봉차박차다정우물시용희

이종희



박정범



유순식

이연주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이 연 주

조희원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조 희 원

街頭楊柳欲春風無奈朝
來雪滿空走向君家急呼
酒衰顏憔悴尚能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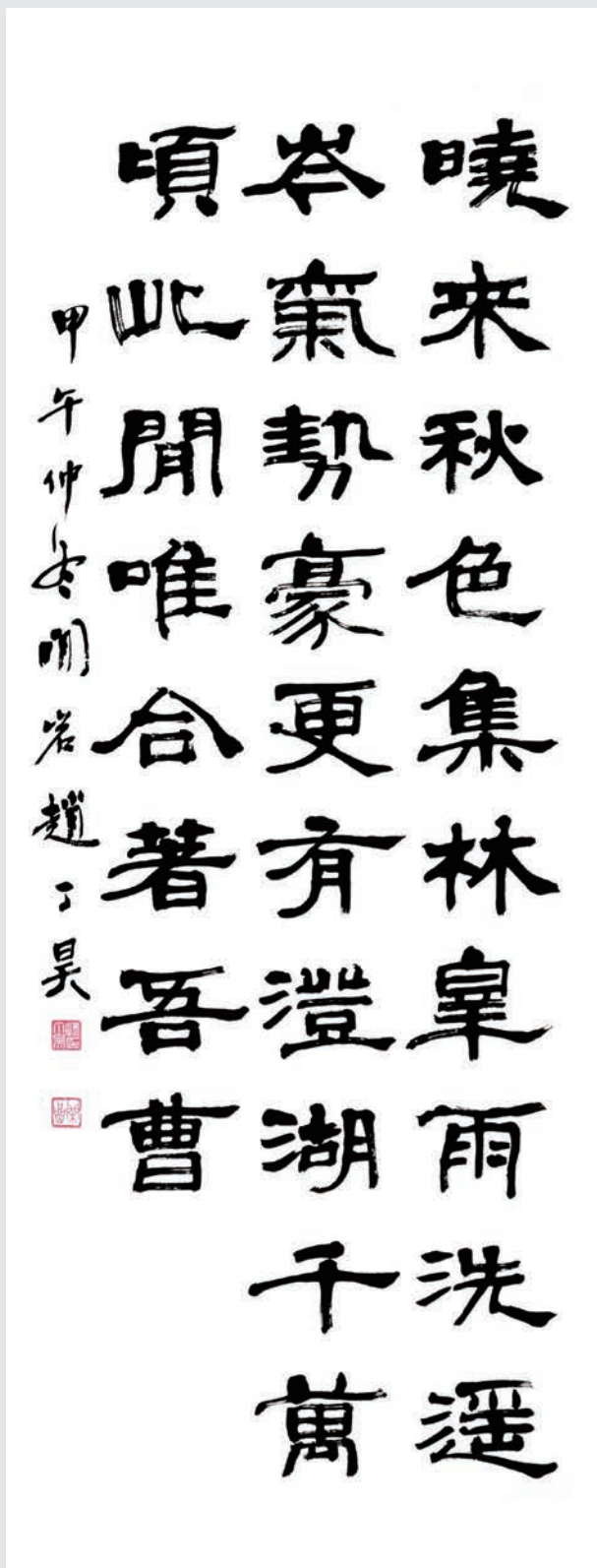
錄三峯先生詩一首香草朴貞姬

박정희

秋風作苦吟舉世少
知音窓外三更雨燈
前萬里心

乙未春亭妍宋明子

송명자



조 정 호



특선·입선

문인화

특 선 양봉례 최승우
입 선 강신천 권기환 김태복 이광혜 이기성 이상길 이원순 이종기 임일순 장영애 전영숙 정낙일 정서운 천건수

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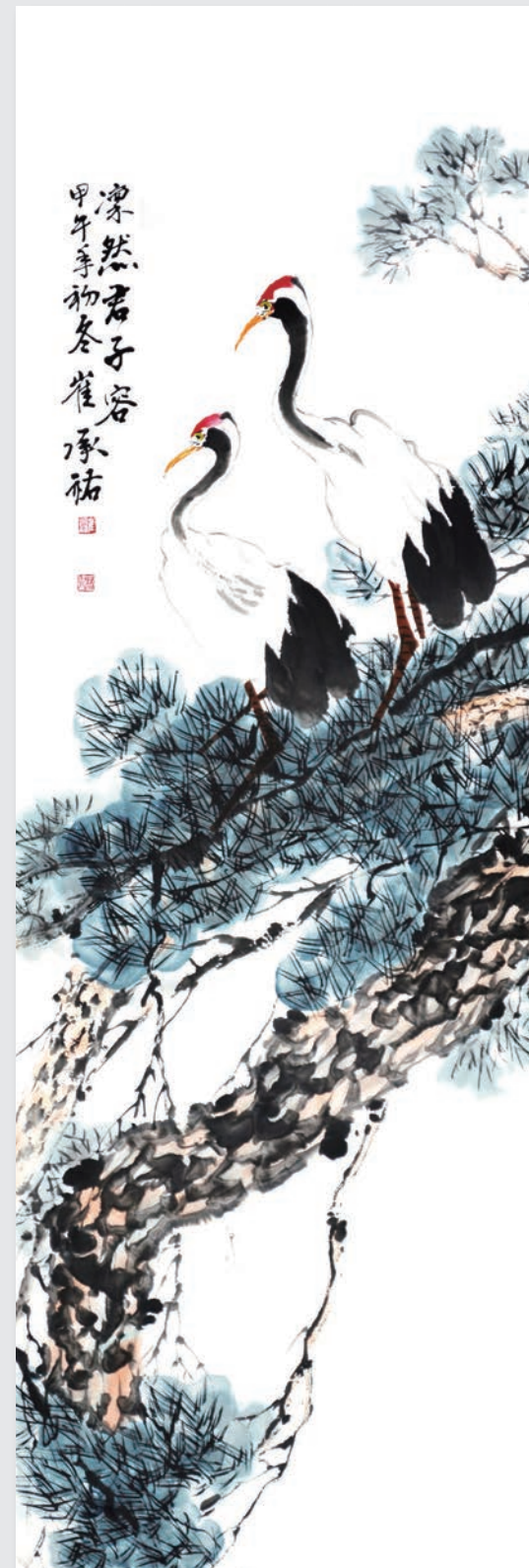
특 선 권명숙 이종희 조희원
입 선 김민주 김수일 김정환 김종권 남명희 박문양 손현주 염수정 이원순 이효임 정은하 조한별 최상호 홍성현

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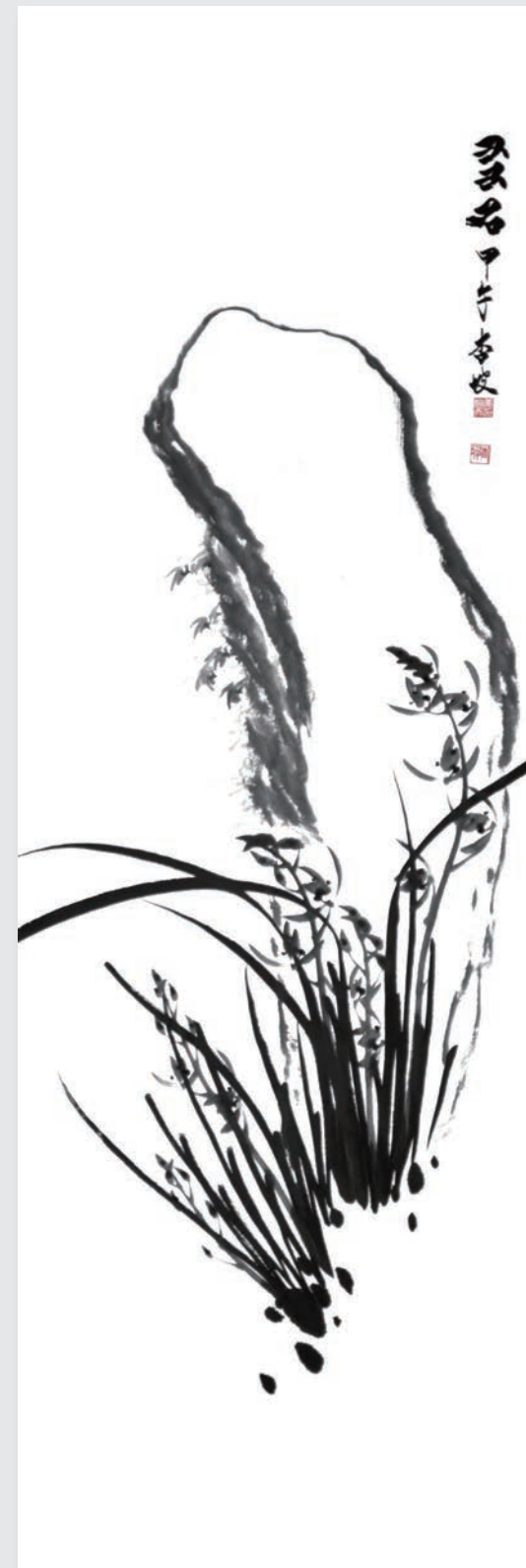
특 선 박종후 성백식 윤영자 윤우근 이강우 이범중 임무순 임지선 전용순 정은량 한순남
입 선 강주식 강창수 권경환 권기환 권상근 권석일 김능식 김돈기 김명숙 김상용 김성민 김숙기 김영렬
김영주 김재원 김정희 김진복 김철중 김태복 김해중 노무신 류기형 박경대 박기조 박문양 박병문
박오신 박은수 박종후 박한웅 송이슬 오충상 원완희 이상길 이윤범 이재준 이진식 이태호 인화정
정윤희 정은량 정현훈 조국영 조효순 지길수 채장영 채현식 손월명 최경애 최익진 최창수



양 봉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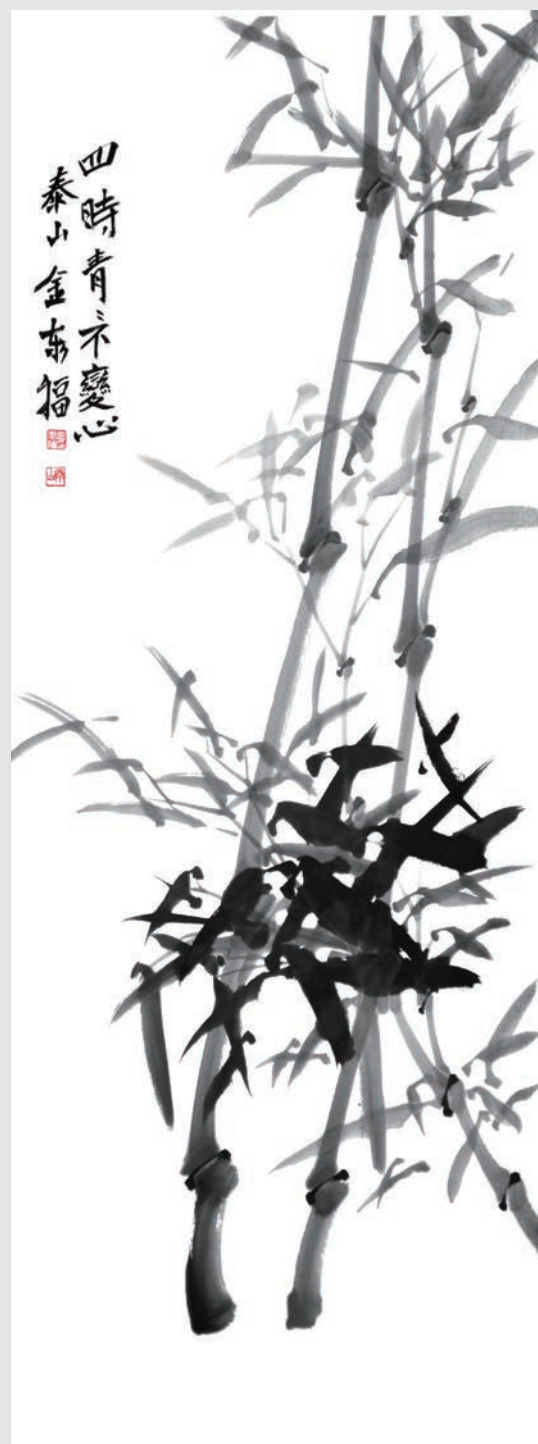
최 승 우



강 신 천



권 기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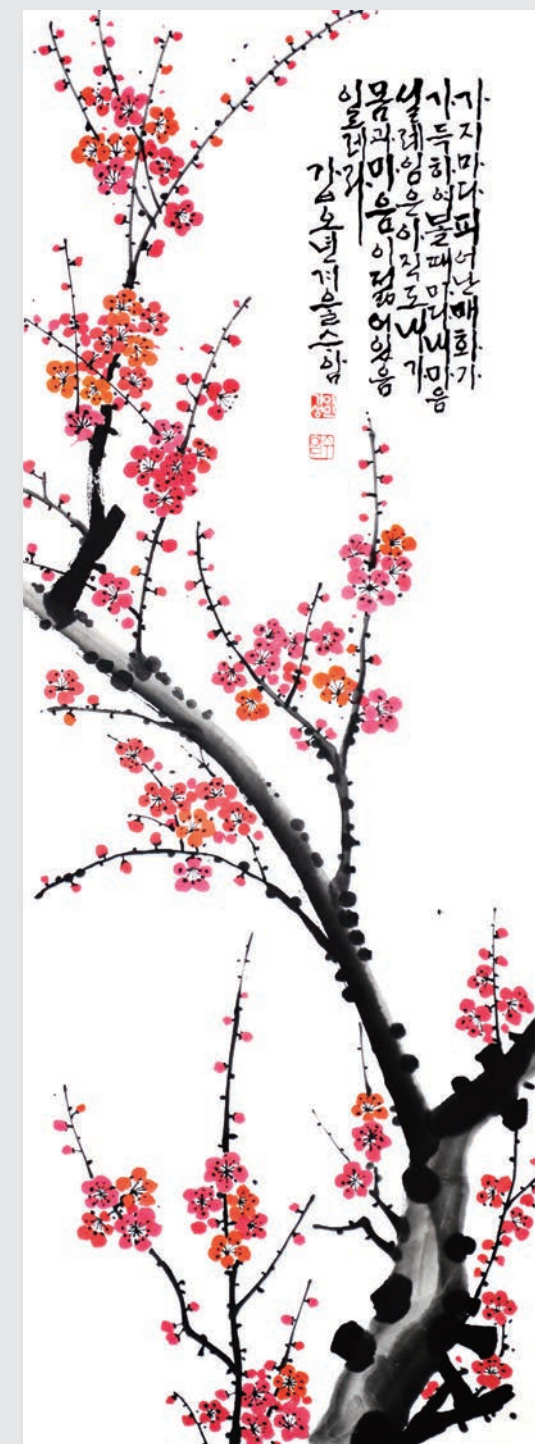
김 태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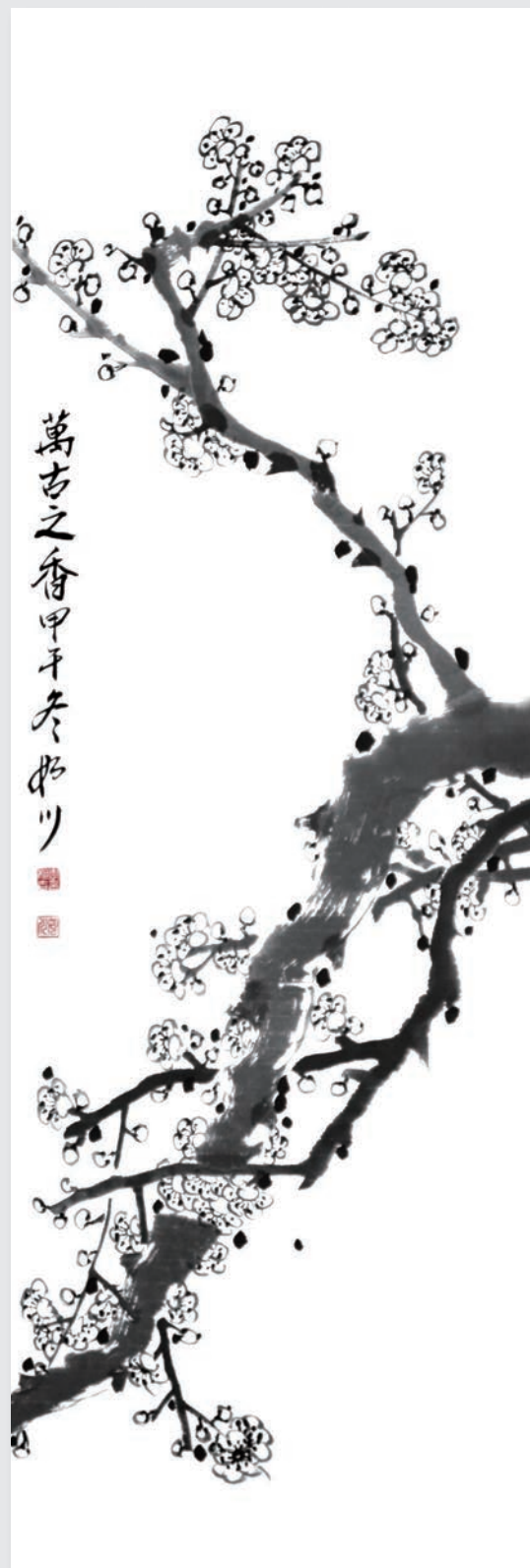
이 광 혜



이 기 성



이 기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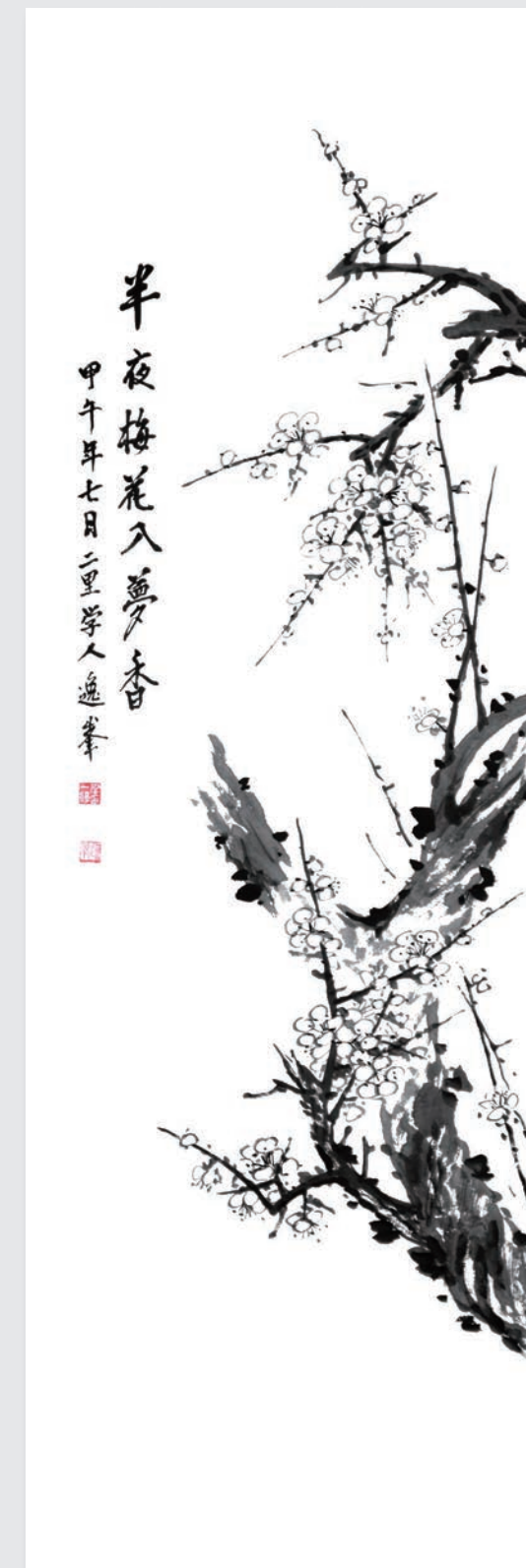
이 상 길



이 원 순



이 중 기



임 일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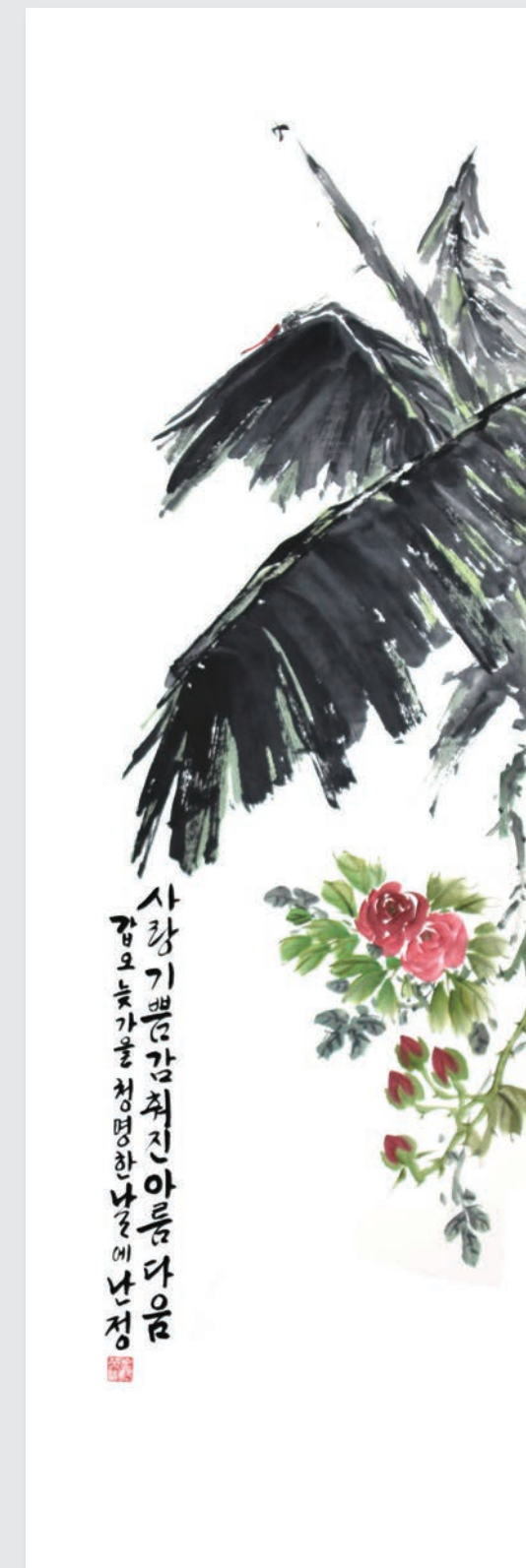
임 일 순



장 영 애



전 영 숙



전 영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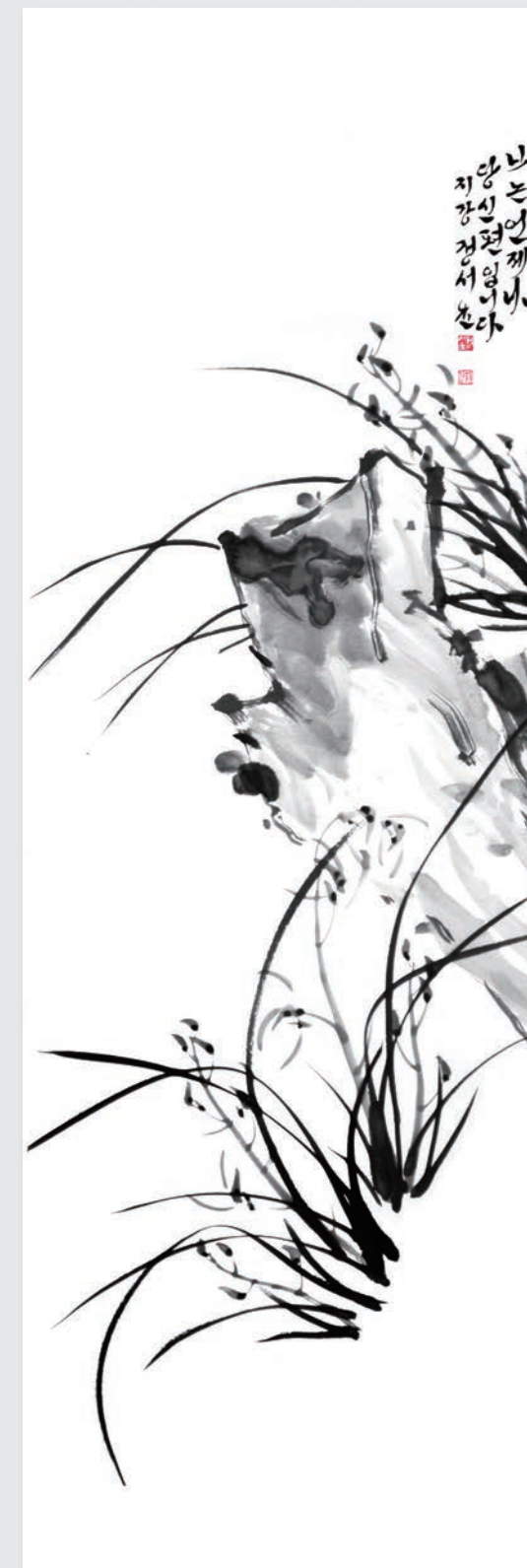
정 낙 일



정 낙 일



정 낙 일



정 서 윤

사랑이요인의 마음을 매로인하여 부끄러움을
거니와 마음이 체사한자는 강포를 닮하
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오니라 이사야 십삼장 말씀 동산 조희원

조희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
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
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이 어디 있으랴

김민주
김민주 작
김민주

김민주

나인생의 방향을 잘못 보지 않게 하여
진리를 얻게 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때나니 인생이란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이니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다

이재우
이재우 작
이재우

김수일

삼천가지 죄악중에 불효보다 더
한 것은 없다 공자님의 이 말씀은
만고에 법도 삼아 아무리 석
이이라도 알아차리게 할지 어 다

노제박인표의오류가부자유침감오년동창암박문양



박문양

조각의보다가면의보다이찾아가차한자의마시덕실
다대말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면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남명희

한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면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김종권

한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아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가면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의보다이찾아가

김정환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글의 아름다움은 그 구조와 형태에서 드러나며, 이는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한글의 발전은 우리의 문명화를 촉진하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감정을 담고 있는 예술이다.

자암(2014) 심이원(조지호) 시나화를 썼다. 광서 최상호

최상호

최상호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글의 아름다움은 그 구조와 형태에서 드러나며, 이는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한글의 발전은 우리의 문명화를 촉진하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감정을 담고 있는 예술이다.

조한별

조한별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글의 아름다움은 그 구조와 형태에서 드러나며, 이는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한글의 발전은 우리의 문명화를 촉진하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감정을 담고 있는 예술이다.

정은하

정은하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글의 아름다움은 그 구조와 형태에서 드러나며, 이는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한글의 발전은 우리의 문명화를 촉진하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감정을 담고 있는 예술이다.

이효임

이효임

旅夢啼鳥喚歸思
繞春樹落蒼苔
空山河
霽故鄉路

銀約軒先生詩
雲峯成百載

성백식

浮碧樓前碧水長大同門
外繫蘭舟長堤綠草年年
色獨依春風憶舊遊

甲午孟冬
杏村

박종후

전국을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로 되 전쟁에 승
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로 다다새로운 고
국 제도를 만드는데 이끄는 것이 무명의 병사로 다
은 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무명의 병사로 다

이천십사년월일날 무명고사예찬니옹의글을본다 하정종성서하

홍성현

천리길치경에막을곳이없다
공예대앞에막을곳이없다
경은대앞에막을곳이없다
에모았다홀이진바람이
이체나다홀이진바람이
미는게이리강한가

신사임당의사치
의상최상호

최상호

芳園多異艸春城總
奇峯獨變芙蓉意清
淡屬吾家

荷潭尹英子

윤영자

葉自毫端出根非地
面生月來無見影風
動不聞聲

乙未春慈睦尹福近

윤우근

甲午冬錄瑪可福音句
梅谷李康祐

이강우

種豆南山下草盛豆苗稀
晨理荒穢帶月荷鋤歸道狹
草木長夕露沾我衣沾不足
惜但使願無違

詠陶淵明歸田園居詩
曉山李乾重

이범중

陰風生巖谷溪水深
更綠倚杖望層巔飛
簷駕雲木

錄李齊賢先生詩
保松林戊順

임 무 순

朝日初昇宿霧收促鞭行
到漢江頭天王不返憑誰
問沙鳥閑飛水自流

甲午冬日錄李奎報先生詩素雲林社善

임 지 선

歸溪茅屋獨閑居
月獨清興多餘外
閑不來山鳥語
多味林

素蓮全鎔順

전 용 순

朝上白雲峰頂觀暮投
峯下孤菴宿夜深僧定
客夢眠杜宇一聲山月落

甲午年冬至前義墩鄧殿堯

정 은 랑

我自彈吾琴不必求
賞音鍾期尔何物強
辨絃上心

物惠韓順男



한 순 남

書傳千古心讀書知
不易卷中對聖賢所
言皆吾師

甲午孟冬之節
月夜姜桂植



강 주 식

清曉日將出雲霞光
陸離江山更奇絕老
子不能詩

錄咸承慶先生詩野行
乙未初春凡民姜昌秀



강 창 수

好學切於春望雨
持心恒若夜聞雷

乙未新春之節 頌逸權景煥

권 경 환

松間是掃乃杖獨行立
雲生破袖竹窓下枕
畫鳥外覺時月侵寒
既

甲午冬節 頌萊根譚白舒亭權起確

권 기 확

玉林毛露月如霰隔水
砧聲江女寒兩岸青山皆
萬古梅花初友定僧還

甲子冬節 畫萊海先生詩 舒亭權起確

권 기 확

感謝生活 至誠感天

각각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다
안국권 상근

권 상 근

雨色雲山濕
空谷秋風紅
葉路僧
踏夕陽還

錄吳康先生詩
甲子冬至
松谷權錫濫

권석일

南枝上寒白得雪更
精神賴有清香動始
知天地春

甲午冬錄姜希孟先生詩
輝岩金能式

김능식

春濃露重杏李花陽
青佳節桃花村綠陰
江村釣夫樂清秋楓
葉青山孤

甲午孟冬
南村金敦基

김돈기

雨過雲山濕泉鳴石
實寒秋風紅葉路僧
踏夕陽還

蕙亭金明洙

김명숙

提壺來郭外佳節是
風流頭間臥松陰
不讓秋松少清

甲午冬至後日
志軒全祥龍

김 상 용

梅花莫嫌小花小風
味長乍見竹外影時
聞月下香

松堂金成珉

김 성 민

正色黃為貴天姿白
亦奇世人看自別均
是傲霜枝

松堂金成珉

김 성 민

隨雪堅中
亂行今日
我迹遂
忙後人程

和字金珉基

김 숙 기

檀花香露三千里
檀樹清風半萬年

甲午冬節 礼小居士 聖信

김영렬

紅樹映山屏
碧溪瀉潭鏡
行吟玉界中
陸覺心清淨

蘇汀金映珠

김영주

霞汝美姿性外粹
內專靜來秋提且挈
網細與衣領

甲午冬 申緯中 詩
女夢 金在元

김재원

不善耐寒日閉戶
觀山聽水未能多
雪風埋屋人相
寂禪如春酒散
梅花

瑞進金正熙

김정희

白髮三千尺綠水似個長
不知明鏡裏何處得愁霜

甲午冬節李白詩秋浦歌九筆金海鏡

김해중

寺在白雲中白雲僧
不掃客來門始開萬
壑松花老

錄李達先生詩
泰山金泰福

김태복

聖策不世主萬民
爲誰行人本自折馬上
有新詩

錄洪武泰先生詩
姜任奎楷

김철중

屏寒窓牖忽南開迎面
冷風淑氣回湛天光依
舊遠始知吾性所從來

甲午冬錄花潭先生詩雪華金鎖福

김진복

宿昔青雲志蹉跎白髮年
誰知明鏡裏形影自相憐

錦張九齡先生詩照鏡甲午南至月琴峯柳奇炯

류기형

流景業廣

時年甲午大雪由島

노무신

蕭湘一枝竹聖主筆端生
山僧香熱燭葉葉帶秋聲

甲午冬節錄西山大師詩九峯金海鍾

김해중

屋上烟初起林間鳥欲棲
牧童橫短笛驅犢下山蹊

甲午冬節錄韓友琦先生詩九峯金海鍾

김해중

盡日相親惟有石
長年可樂莫如書

乙未年清江朴炳文

박병문

臨溪茅屋獨閑居
月白清風興有餘
外客不來山鳥語
移床竹塢臥看書

甲午冬蒼岩朴文陽

박문양

春雨細不滴夜中微
有聲雪盡南溪漲
草茅多少生

錄鄭夢周先生詩春興
松庵朴起助

박기조

秋夜雨中秋風唯苦
吟世路少知音窓外
三更雨燈前萬里心

角里初三年朴徑待

박경대

青苔仍屋老赤葉漸
林妍飄泊西東久山
中鎖暮煙

甲午曉石朴五信

박 오 신

窮秋新老庭前樹靜夜
聲高石上泉睡起淒然
如夢雨憶曾著茅泊漁船

乙未年秋金富軒先生詩筆心朴殷洙

박 은 수

春去夜猶在天晴谷
自陰杜鵑啼白晝始
覺卜居深

甲午孟冬委村朴鍾厚

박 종 후

雲想衣裳花想容春風拂
檻露華濃若非群玉山頭
見會向瑤臺月下逢

甲午孟冬
杏村

박 종 후

綠水青山幾萬重
雲煙掩靄有無中
居民但自知耕鑿
淳朴依然太古風

甲午冬至 鄭欽之作 中山邑館

崔若元 浣喜



원완희

堂室和樂
夫婦和愛
其家與

甲午年

正月 亭山 吳忠相



오충상

東飄西轉
跋扈塵泥
策蹇羸
騁幾苦辛
不是不知歸去
好只緣歸去
又家貧

甲午年 報孤云先生詩 吳軒 宋鑒翠



송이슬

最要緊的是彼此切實
相愛因為愛能遮掩許
多的罪

聖經彼得前書四章八節
甲午冬 落穂 朴漢應



박한응

羈鳥戀舊林池魚思
故淵開荒南野際守
拙歸園田

甲午冬錄陶淵明先生詩一首
積庵李鎮植

이진식

古人云志氣四海一力孤
坐望三歲兄事之予予
婦焉家明日吾巨吾知後
天地內了望親之德

錄公西先生詩
積庵李鎮植

이재준

春雨細不滴夜中微
有聲雪盡南溪漲草
芽多少生

嶺山李允範

이윤범

春雨細不滴夜中微
有聲雪盡南溪漲
草芽多少生

錄園隱先生春興
甲午孟冬如少

이상길

永和九年歲在癸丑暮春之初會于會稽山陰之蘭亭脩禊事也羣賢畢至少長咸
集此地有崇山峻嶺茂林脩竹又有清流激湍映帶左右引以為流觴曲水列坐其
次雖無絲竹管絃之盛一觴一詠亦足以暢敘幽情是日也天朗氣清惠風和暢仰
觀宇宙之大俯察品類之盛所以遊目騁懷足以極視聽之娛信可樂也夫人之相
與俯仰一世或取諸懷抱悟言一室之內或因寄所託放浪形骸之外雖趣舍萬殊
靜躁不同當其欣於所遇暫得於己快然自足不知老之將至及其所之既倦情隨
事遷感慨係之矣向之所欣俛仰之間以為陳迹猶不能不以之興懷況脩短隨化
終期於盡古人云死生亦大矣豈不痛哉每覽昔人興感之由若合一契未嘗不臨
文嗟悼不能喻之於懷固知一死生為虛誕齊彭殤為妄作後之視今亦猶今之視
昔悲夫故列敘時人錄其所述雖世殊事異所以興懷其致一也後之覽者亦將有
感於斯文

錄王羲之蘭亭序 甲午年冬至義順館 嚴亮

정은량

尊德性道問學致廣大盡
精微極高明道中庸溫故
知新敦厚崇禮

甲午冬書中庸句
素石鄭允熙

정윤희

秋風悲苦吟聲止少
知音窗外三雙雨
肖真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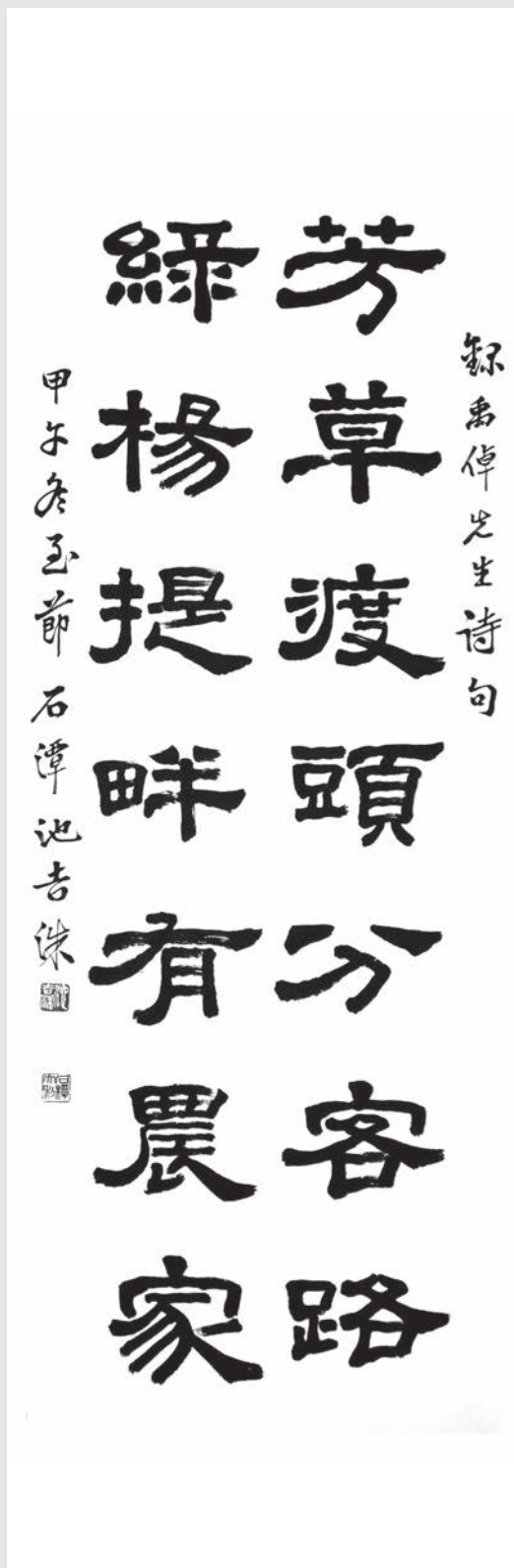
孤雲先生詩秋雨中
然牛堂印花貞

인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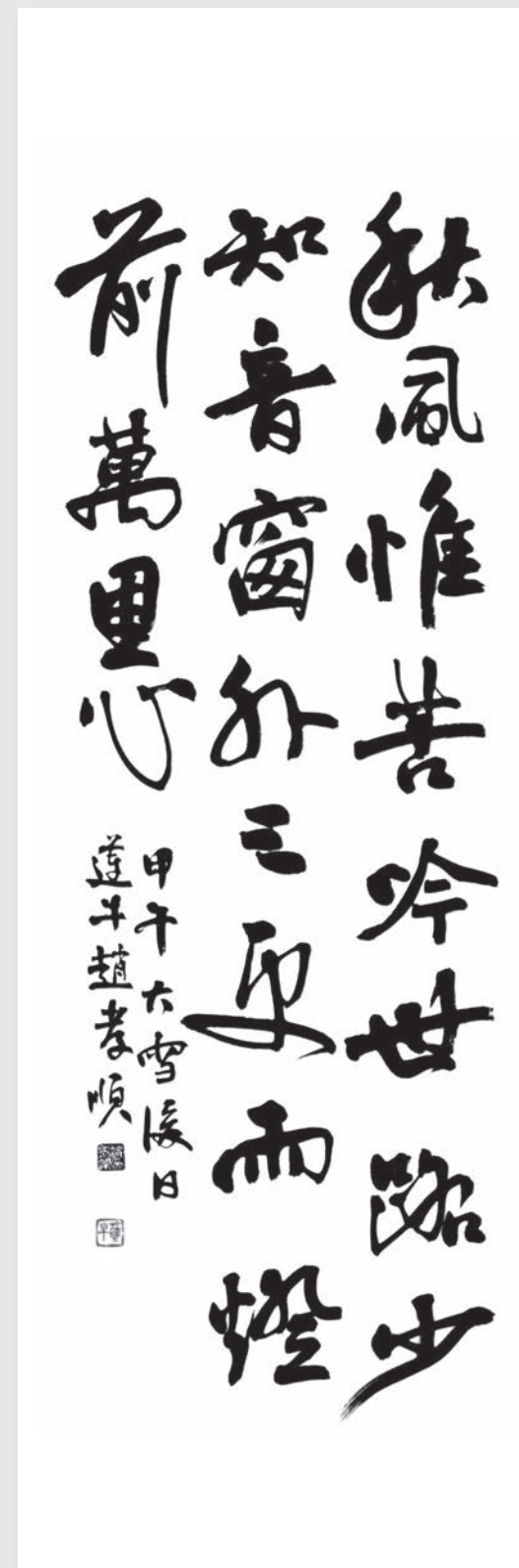
遠上寒山石迳斜白雲生處
有人家停車坐愛楓林晚霜
葉紅於二月花

錄杜牧先生山行詩
新岩李台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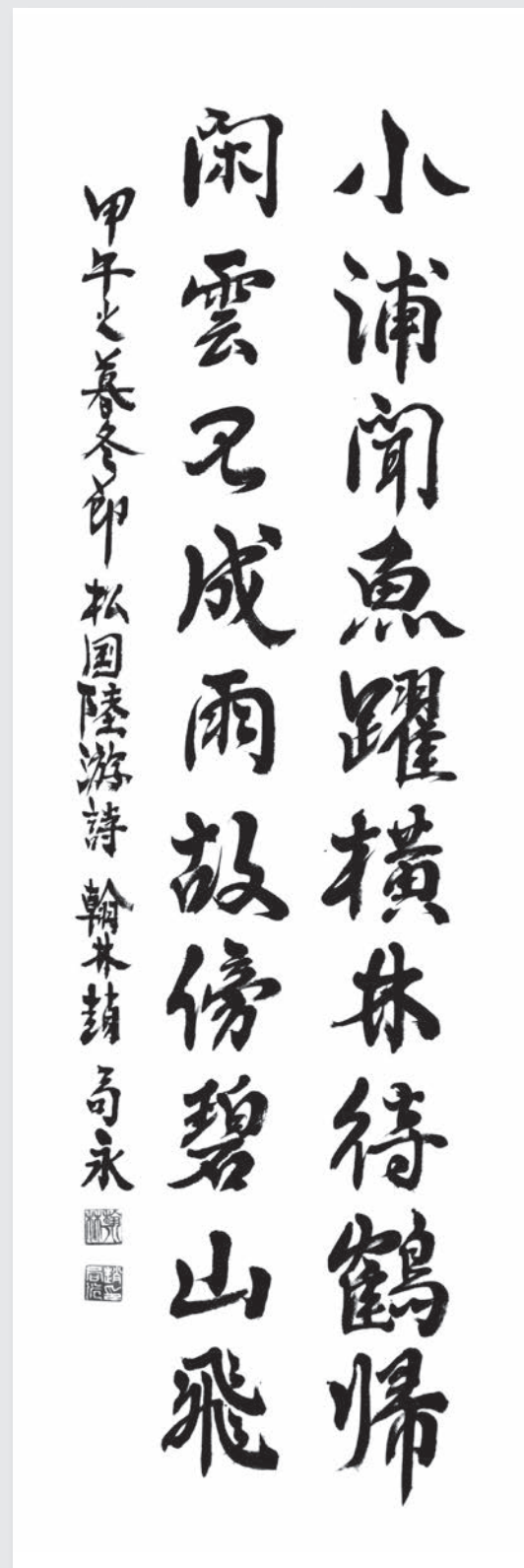
이태호



지길수



조효순



조국영



정현훈

落日臨荒野寒鴉下
晚村空林烟火冷白
屋掩柴門

玄巖蔡章榮

채 장 영

書卷深知誤此生餘生逝
與割思情心根苦未消磨
盡卧聽鄰兒讀史聲

錄茶山先生詩一首甲午孟冬西疇蔡玄植

채 현 식

谷口來相訪空齋不
見君澗花燃暮雨潭
樹暖春雲

韓國口話學校高一年李明

촌 월 명

山明宿雨霽花下復
清晨泉石多仙趣汀
亭供善憐

甲午孟冬
亭如崔敬愛

최 경 애

主乃我之牧者使我不至窮乏使我卧於草地
引我至可安歇之水濱使我心蘇醒為己之名
引導我行義路我雖過死陰之幽谷亦不懼遭
害因主常在我側主有杖有竿足以安慰我在
我敵人前為我備設筵席以膏沐我首使我之
杯滿溢我一生惟有恩寵慈惠隨我我必永久
居於主之殿

甲午立冬節書錄詩篇三篇 青峯 崔昌壽

최창수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
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無意識
界無無明二無無明盡乃至無老死二無老死盡無苦集滅道無智亦無得以
無所得故般若提薩憐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礙無罣礙故無有恐怖遠
離顛倒夢想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
菩提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呪是大明呪是無上呪是無等尊呪能除一切
苦真実不虚故說般若波羅蜜多呪即說呪曰揭諦揭諦般若揭諦般若僧揭
諦般若提薩婆訶

佛紀三五八年三義三集字聖序錄 青峯 崔昌壽

최창수

白頭山石磨刀盡至滿江
水飲馬無男兒二十未平
國後世誰稱大丈夫

甲午冬至 雲峰 崔益鎮

최익진

讀書不見聖賢為銘繫痛
居官不愛子民為衣冠盜
講學不尚躬行為口頭禪
立業不思種德為眼前花

甲午冬至 雲峰 崔益鎮

최익진

화전별곡

〈제1장〉

하늘의 끝, 땅의 변두리, 한 점 신선이 사는 섬.
왼쪽은 망운산이고, 오른쪽은 금산, 봉내와 고내 흐르고,
산천이 기묘하게 뛰어나 호걸과 준사들이 모였나니, 인물이 번성했네.
아, 하늘 남쪽 경치 아름다운 곳의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풍류와 주색을 즐기는 한 시절의 인걸들,
풍류와 주색을 즐기는 한 시절의 인걸들.
아, 나까지 몇 분입니까!

〈제2장〉

하별시 위의 지란과 영지 무늬를 새긴 품대, 나이와 관직이 아울러 높고,
박교수가 취한 가운데 이리저리 손 휘젓는 버릇.
강륜의 잡담과 방훈이 코골며 자는 모습, 정기가 먹고 마시는 모습.
아, 품계를 지닌 벼슬아치들이 화목하게 모여 있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하세연씨가 재주를 뽐내면서 읊는 풍월,
하세연씨가 재주를 뽐내면서 읊는 풍월.
아, 시를 지어 부르고 화답하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제3장〉

서옥비와 고옥비의 검고 흰 피부 빛깔이 아주 다르고,
큰 은덕과 작은 은덕의 늙고 젊은 것이 같지 아니하며,
강금의 노래와 춤, 녹금의 장고 솜씨, 몸맵시 잘난 학비와 못난 옥지.
아, 꽃나무와 수풀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화전이라는 별호가 이름과 실상이 딱 맞아 떨어지네,
화전이라는 별호가 이름과 실상이 딱 맞아 떨어지네.
아, 철석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아니 끊어질 리 없더라!

자암 김구가 남해 유배지에서 남긴 대표작은 경기체가로 지은 6장의 화전별곡이다. 아래에 제시한 것이 화전별곡의 현대어 해석문이다. 화전은 남해의 별칭이고, 제1장은 화전의 경치, 제2장은 교우(交友), 제3장은 연락(宴樂), 제4장은 연락 중에 음악, 제5장은 술과 안주의 풍부함, 제6장은 결락구로서 자신의 생애를 읊고 있다.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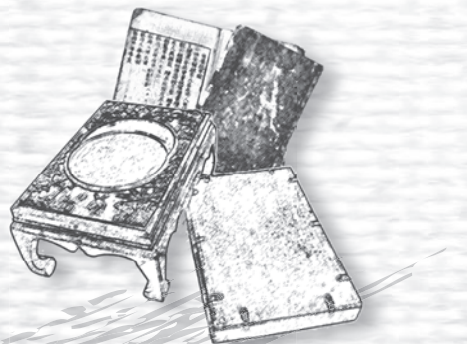
한원금은 글로써 노래하고, 정소는 풀피리를 부는데,
때로 바릿대를 치고 소반도 두드리면서 때로 잔대도 치고
머리를 흔들고 몸을 뒤흔드는 등 갖가지 취한 모습들.
아, 흥이 발하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강윤원씨 가 스르렁땡 거문고를 타는 소리,
강윤원씨 가 스르렁땡 거문고를 타는 소리.
아, 듣고 난 뒤에야 잠이 들리라!

〈제5장〉

녹파주와 소국주에 맥주와 탁주까지, 황금빛 닭과 흰 문어며 유자잔과 첩시대에
아, 잔에 가득 부어 술잔을 권하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정희철씨 는 밀밭만 지나가도 크게 취한다네,
정희철씨 는 밀밭만 지나가도 크게 취한다네.
아, 어느 때에 슬픈 적이 있겠습니까!

〈제6장〉

서울의 변화함이야, 너는 부러우냐?
지체 높은 벼슬아치가 사는 붉은 대문, 술과 고기가 너는 좋으냐?
돌무더기 골라낸 밭에 띠로 엮은 작은 집, 계절마다 조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드니
향촌 사람들이 모여 여는 모임을 나는 좋아하노라!



2014 조선 4대 명필

제2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 수상작품집 |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340-802 충남 예산군 · 읍 천변로 90번길 3번지
Tel. 041-333-2441, 335-2441 Fax. 041-334-4330
<http://yesancc.or.kr>